

# 이대호의 뜨거운 방망이, 예고된 작별이 아쉬울 뿐



올 시즌 종료 후 은퇴... 변함없는 타격 기술 화려  
타율 6위·안타 공동 6위로 여전한 기량 과시 중

예고된 작별이 벌써 아쉬울 정도로 기량은 여전히 정상급이다. 롯데 자이언츠의 영월한 4번타자 이대호가 변함없는 타격 기술로 자신의 마지막 시즌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다. 이대호는 18일까지 팀이 치른 13경기에 모두 나서 타율 0.383(47타수 18안타)을 기록 중이다. 아직 시즌 초반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무척

이상적인 기록이다. 타율은 전체 타자 중 단독 6위, 안타는 공동 6위에 해당한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스트라이크 존의 정상화를 표방하면서 리그 전체 3할 타자가 14명에 그치고 있는데, 이중 한 명이 불혹의 이대호다. 전성기에 비해 힘은 분명 떨어졌다. 그러나 오랜 기간 닦은 기술과 타고난 유연성은 '역시 이대호'라는 찬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특유의 배트 컨트롤로 현재까지 삼진은 4개

에 불과하다. 50타석 이상을 소화한 3할 타자 중 삼진이 5개 미만인 선수는 전 구단을 통틀어 이대호가 유일하다. 그렇다고 파위가 완전히 실종된 것도 아니다. 이대호는 지난 17일 KT 위즈전에서 마수길이 홈런을 신고했다. 젊은 선수들도 버거워 하는 높아진 사직구장의 담장을 이대호는 힘으로 정복했다. 타이밍만 맞으면 언제든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증거다. 15년 가랑 해결사를 담당한 덕분인지 박빙의 순간에는 더욱 강하다. 득점권 타율은 0.200(10타수 2안타)로 아쉬운 편이지만, 1점치고 있을 때 타율은 0.417(12타수 5안타)로 올라간다. 1점차의 근소한 리드를 유지할 때

도 0.455(11타수 5안타)의 고타율을 자랑한다. 시즌 초반 롯데는 약체라는 평가를 뒤집고 7승6패로 5할 승률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큰 기대를 모은 외국인 타자 DJ 피터스(타율 0.125·48타수 6안타)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떠나는 이대호와 그의 후계자인 한동희(타율 0.386·10타점)가 타격을 쌓아가는 모양새다. 이대호의 화려했던 선수 생활은 올 시즌 종료와 함께 마침표가 찍힌다. 전대미문의 타격 7관왕과 일본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진출이라는 남부럽지 않은 이력을 지닌 슈퍼스타는 마지막 시즌도 허투루 치를 생각이 없다. 뉴스

## 울산·대구·전남, 모두 동남아 팀에 덜미

울산·대구·전남,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동남아 클럽에 모두 패배

'동남아 쇼크다.' 프로축구 K리그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제대로 자존심을 구겼다. 울산 현대, 대구FC, 전남 드래곤즈가 한 수 아래로 여겼던 동남아 팀들에 모두 패했다. K리그1(1부) 선두팀 울산은 18일 말레이시아 조호르바루의 숄탄 이브라힘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조호르 다룰 탁심(말레이시아)과의 2022 AFC 챔피언스리그 1조 2차전에서 1-2로 패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실점한 울산은 후반 7분 임원상이 동점골을 터뜨렸지만 경기 막판 추가 실점하면서 이번의 희생양이 됐다. 경기 내내 높은 볼 점유율로 주도권을 잡았지만 상대의 역습 전략에 허를 찔린 한 판이었다. 울산(1무1패 승점 1)은 조 3위다. 흥명보 울산 감독은 "전부 실수로 인해 실점을 했다.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지만 상대가 잘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한다. 오늘은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패배를 인정했다. 대구는 태국 부리람의 부리람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라이언 시티(싱가포르)와 F조 2차전에서 0-3으로 완패했다.

1차전에서 리저브팀이 출전한 산둥 타이산(중국)에 7-0 대승을 거둔 상송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과거 울산 지휘봉을 잡았던 김도훈 감독의 라이언 시티 역시 수비를 바탕으로 하면서 역습에 주안점을 뒀다. 적중했다. 대구는 내리 3골을 허용하며 힘없이 무너졌다. 가마 대구 감독은 "경기를 쉽게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며 "우리가 원하던 움직임은 보여줄 수 없어서 아쉽다. 결과를 바꿀 수 없지만 오늘 경기를 토대로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팀 자격으로 나선 K리그2(2부)의 전남은 G조 2차전에서 팽툼 유나이티드(태국)에 0-2로 졌다. 전경준 전남 감독은 "결과는 아쉽지만 아직 4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회복해서 다음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구와 전남은 나란히 1승1패(승점 3)로 각각 F조, G조 3위에 머물러 있다. 한편, H조의 전북 현대는 19일 오후 11시 요코하마(일본)와 2차전을 치른다. 1무 중이다.

## 김하성 시즌 두번째 적시타...샌디에이고 2연승

신시내티와 홈경기서 4회말 타점, 4타수 1안타 기록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의 김하성이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펙코 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2022 MLB 홈경기에서 4회말 타격을 하고 있다.

김하성(샌디에이고 파드레스)이 시즌 두 번째 적시타를 날리며 유망주 CJ 에이브러브스와 경쟁을 본격화했다. 김하성은 1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펙코 파크에서 열린 신시내

티 레즈와 2022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홈경기에 유격수 겸 8번 타자로 나서 4회말 적시타를 기록하며 4타수 1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김하성의 타율은 0.235에서 0.238로 약간 올라갔다.

김하성은 2회말 2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나선 첫 타석에서 3루수 앞 땅볼에 그쳤지만 4회말에 힘차게 방망이를 휘두르며 적시타를 만들어냈다. 4회말 2사 1, 2루 기회에서 1할 2스 트라이크의 불리한 볼 카운트에 몰렸지만 상대 선발투수 닉 로돌로의 커브를 받아쳐 깔끔한 중전 적시타를 터뜨려 2루 주자 주리슨 프로파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이후 타석에서는 안타를 생산하지 못했다. 6회말 1사 1루에서 나선 세번째 타석에서 빗맞은 타구가 행운의 안타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우익수 아리스티데스 아퀴노에게 잡히며 물러났다. 8회말 1사 주자없는 상황에서 나선 마지막 타석에서는 삼진이 그쳤다. 김하성은 두 번째 타석 안타로 한때 타율이 0.268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0.238로 떨어졌다. 김하성은 정규타석을 채우지 못했지만 유격수 자리를 놓고 번갈아 나서는 에이브러브스(0.115)는 물론이고 제이키 크로넨워스(0.190)에도 타율에서 앞서고 있다. 특히 크로넨워스는 이날도 안타를 때리지 못해 4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치는 바람에 타율이 1할대로 떨어졌다. 지난 1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경기에서 이어 2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한 김하성이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으며 타격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에이브러브스와 주전 경쟁에서도 우위를 보일 수도 있다. 한편 샌디에이고는 매니 마차도의 역전 2점 홈런과 김하성의 적시타, 루크 보이트의 희생타를 묶어 신시내티에 4-1로 이기고 2연승을 달렸다. 뉴스

## 우상혁, 시즌 첫 실외경기 우승 '2m30'

항저우AG 선발전 겸한 중별선수권대회서 우승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올 시즌 처음 치른 실외경기에서 2m30을 뛰어넘으며 우승했다. 우상혁은 19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1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높이뛰기 남자 일반부 결선에서 2m30을 뛰어넘어 우승했다. 2m20을 1차 시기에 성공한 우상혁은 2m26도 1차 시기에 뛰어넘어 우승을 확정했다. 2위 윤승현(울산광역시청)은 2m20을 1차 시기에 넘었으나 2m23을 3번 모두 실패했다. 바를 2m30으로 높인 우상혁은 1차 시기에 바를 건드렸지만, 2차 시기에서는 바를 넘는데 성공했다. 우상혁은 이어 2m34에 도전했으나 세 차례 시가 모두 바를 건드렸다. 중별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선발전을 겸한다. 대한육상연맹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해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를 선발한다. 선발대회인 중별선수권대회 각 종목별 1위 선수는 우선 선발 대상자가 된다. 우상혁은 지난해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4위에 오르는 등 국제 경쟁력을 보여준데다 선발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했다. 사실상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우상혁이 국내에서 경기를 치른 것은 지난해 7월 8일 고성동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앞서 지난해 6월 29일 열린 높이뛰기 우수 선수초청(남자) 공인기록회에 출전해 2m31을



뛰어넘고 도쿄올림픽행 티켓을 극적으로 따냈다. 우상혁은 큰 무대를 거치며 가파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8월 도쿄올림픽에서는 2m35의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한국 육상 트랙·필드 최고 성적인 4위에 올랐다. 올해 2월 6일 체코 후스토페체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인도어(실내) 투어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는 2m36을 뛰어넘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기록을 경신했다. 2월 16일 슬로바키아 반스카 비스트리차에서 열린 인도어(실내) 투어 높이뛰기 대회에서 2m35로 우승한 우상혁은 3월 20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2022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에서 2m34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세계실내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는 우상혁이 최초다. 우상혁 이전에는 메달을 딴 선수도 없었다. 올해 첫 실외경기로 가볍게 몸을 풀 우상혁은 7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메달을 노리며 담금질을 이어간다. 뉴스



## MVP 양효진 "내 노력,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쁘다"

"두 번이나 정규리그 1위 하고도 챔피언 못 치른 건 정말 아쉽다"

'도드람 2021~2022시즌 V-리그' MVP를 수상한 양효진(33·현대건설)이 성적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니 상을 받게 됐다고 활짝 웃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8일 오후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양효진은 이번 시즌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여자 선수로 MVP 상상의 영광을 안았다. 베스트7에서도 최고의 센터로 이름을 올렸다. 양효진은 팀의 중심을 잡아주며 정규리그 1위에 기여했다. 31경기에 출전해 502점을 올렸다. 블로킹, 송공, 오픈공격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양효진은 31표 중 28표를 받는 등 압도적인 득표율을 자랑했다. "상을 받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느지막하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렇게 많은 득표를 한지 몰랐다. MVP 수상에 대한 기대를 하긴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께서 좋게 봐주시고, 플레이 했던 것을, 노력했던 것을 인정해주신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기뻐했다. 신인시절 시상식에서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자신을 더욱 채찍질 한 것이 8시즌 연속 베스트7수상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2019~2020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챔피언결정전에 출전하지 못한 양효진은 "선수들이 시즌을 1위로 마무리하고 도 우승 타이틀을 못 가져간 게 속상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두 시즌 다 이렇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챔피언 못한 건 아직까지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속내를 밝혔다. 뉴스



##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전국대회서 메달 6개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선수단은 4월 6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양구군에서 열린 '전국 춘계 남녀 역도대회 및 2022 아시아 경기대회 선발 평가전'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2022 아시아 경기대회 선발 평가전에 출전한 이양재 선수(+109kg)는 인상 178kg 1위, 용상 230kg 2위, 합계 408kg 1위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임정희 선수(+87kg)는 여자대학 일반부에서 인상 110kg 1위, 용상 132kg 1위, 합계 242kg 1위로 금메달 3개를 거머쥐었다. 김준 선수는(81kg) 남자대학 일반부에서 인상 116kg 4위, 용상 145kg 4위, 합계 261kg 4위를 기록했다. 완도군청 역도실업팀 서호철 감독은 "코로나 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소 선수들이 훈련에 최선을 다해 값진 결과를 얻게 됐다"면서 "부상으로 이번 대회에 아쉽게 출전하지 못한 강민우 선수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완도군청 이성용 체육진흥과장은 역도 경기를 방문한 선수들을 격려했다. 한편 오는 11월 완도군에서는 '2022년 전국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가 개최된다. 기획재정부